

우리 신앙의 유산, 교리서

지 난 2년 사이에 한국교회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신앙의 진리와 빛을 밝히는 데 준거가 되는 책들이 발행된 것이다. 먼저 2002년 12월에 「요한 묵시록」의 출간을 끝으로 가톨릭 신·구약 성서의 1차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고, 둘째로 2002년 5월에 「공의회 문헌」이 새 용어에 따라 새롭게 번역되었으며, 셋째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공식 번역본으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2003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그것을 바탕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총무 정승현 요셉 신부님을 만나 교리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교회의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신부님께서 총무로 일하시는 교리교육위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제가 교리교육위원회 총무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리교육의 지침을 마련하고 교리교육의 교과과정을 정립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다양한 교리서를 편찬하여 교리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신부

‘가톨릭 교리 전반에 관한 연구와 실무’를 담당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신 일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4년 새해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 천주교 교리교육 지침서’와 ‘초·중·고 교리교육 진도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2004년에는 이러한 작업이 완성되리라 봅니다. 이미 「교리교육 총지침」이 1997년도에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나온 바 있지요. 저희도 그것을 번역해서 내놓았고요. 이 지침서가 ‘신앙교리성’이 아니라 ‘성직자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목자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것을

뜻해요. 이제 우리에게도 교리교육에 관한 지침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교리교육 총지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 천주교 교리교육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8년 전에 3권으로 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나왔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지난해에 한 권짜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출판되었습니다. 8년 전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지난해에 발행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가톨릭 교회의 표준 교리서’라고 일컫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1992년에 프랑스어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3년에 걸쳐 이 프랑스어판을 번역하여 3권의 책으로 펴낸 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교회의 교리서는 교황청의 인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준에 앞서 이를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프랑스어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손질하여야 할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약 800군데를 수정했지요. 교황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큰 기쁨”이라는 교황교서와 함께 1997년 라틴어 표준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했습니다. 작년 5월에 출판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라틴어판을 번역한 것이고, 교황청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아 출판되었지요. 이 책은 천주교의 교리를 총망라한 것으로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교리서를 바탕으로 천주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신자 교리서」와

작년 5월에 출판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라틴어판을 번역한 것이고, 교황청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아 출판되었지요. 이 책은 천주교의 교리를 총망라한 것으로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교리서를 바탕으로 천주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견진 교리서」가 출판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모든 교리서는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나침반과도 같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도 많이 읽고 있다고 보십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신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먼저 사목자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굶주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읽어야 하는 책이지요. 왜냐하면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야 하는데, 찬밥이 아니라 새로 지은 따뜻한 밥을 지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교리서를 통해 따뜻한 밥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보급된 것은 겨우 4,000부를 조금 넘었어요. 이는 사목자들이나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이 이 책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서의 중요성을 아는 몇몇 신부님들은 신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의 '명도학당' 과 서울대교구의 '우면 강학회' 등이 바로 이러한 모임입니다. 전주교구 군산 나운동성당에서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신앙 진술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라마다 교리서를 편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만들어진 교리서들이 너무나 중구난방이라 모든

사목자들에게 준거가 될 만한 교리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리서가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정신과 그 이후에 끊임없이 변화되어 온 교회의 모습을 받아들여 가톨릭 교리를 총망라한 것이지요. 이 교리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도 한국 천주교 교리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비신자 교리서나 견진 교리서보다 한국 천주교 교리서'가 먼저 발행되었어야 했겠네요.

처음엔 한국 천주교 교리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한 것이 예비신자 교리서였어요. 그 당시에 이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만든 「예비신자 교리서」가 있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본당이 적고, 서울대교구에서 만든 「초대받은 당신」이라는 교리서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교구에서도 나름대로 교리서를 만들어 예비신자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교리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덜 중요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교리인 듯이 비쳐지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준거가 되는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견진성사도 입교성사의 하나라 자연스럽게 「한국 천주교 견진 교리서」를 잇달아 발행하게 되었지요.

작년에는 「간주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방대한 분량(총 1318면)입니다. 따라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목자들도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이 교리서는 아주 주옥같은,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리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교회의에서 교리교육위원회에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만들게 되었지요. 제가 이 초안을 작성했는데, 「한국 천주교 교리서」를 쓰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교리서의 작업과정이 마찬가지지만, 일단 초안이 마련되면 교리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교구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하지요. 그 다음에는 교리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 결과물을 교리주교위원회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고,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 출판하게 됩니다.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징검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먼저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황청에서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요약(digest)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이제스트(digest)라고 하면 씹어서 소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예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찬란한 보석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대신 부연 설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빼버리고 알맹이만을 옮겨놓은 것이지요.

이 책은 총 46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과(課) 정도씩 공부한다면 1년 안에는 이 책을 다 읽게 되지요. 그리고 한 과는 한 주일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맞추었습니다.

먼저 각 과의 시작은 그 과의 교리를 종합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글상자에서는 그 과의 내용을 집약하여 설명했지요. 본문의 교리 설명은 되도록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소재목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문답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간추림’ 가운데 중요한 내용 두세 개를 문답으로 정리했지요. 말씀에는 중요한 성서 말씀서너 개를 같은 주제 아래 모아놓았고, 새김에는 교부와 성인들의 증언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기도에는 시편과 성서에 나오는 다른 기도들, 그리고 성인들의 기도를 소개했지요. 교리가 하느님의 말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야 하는데, 찬밥이 아니라 새로지은 따뜻한 밥을 지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 따뜻한 밥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이 교리서가 보급된 것은 겨우 4,000부를 조금 넘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씀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교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지요. 이러한 특징을 알고 책을 읽으면 더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비신자 교리서이든 신자 재교육용이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교리서다운 교리서를 찾기 힘들다.”고 많은 사목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록 소수의 부정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크게 듣는 편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리서 가운데 현장에서의 검증 단계를 밟은 교리서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리서를 만드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교리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일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교구에서 교리를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나름대로 교리서를 만들어 ‘이걸 사용해라.’ 또 나중에 다른 신부님이 오셔서 ‘아니다. 이걸 사용해라.’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교리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리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5년 뒤에 검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리서를 더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연령별 교리서도 마련할 예정이고, 혼인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리서나 병자들을 위한 교리서, 자녀의 유아세례나 첫 영성체를 청하는 부모를 위한 교리서, 군인들을 위한 교리서,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교리서 등도 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교리교육위원회에만 맡기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지요. 뜻이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겠지요.

교리교육과 관련하여 새해에 사목자들과 우리 신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리와 성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교리이고, 성서 말씀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100분이 넘는 성인을 모시고 있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리서를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어요.

교리서는 우리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5배, 10배로 키워가야지요. 